

밸런스·컨트롤 조화... 내년엔 희망을 뿌린다

부상서 돌아온 심 동섭 호랑이 마운드 계보 이을 기대주



올 시즌 추락하던 팀 위해
예상보다 빠르게 마운드 복귀
역투했지만 결과는 씁쓸
지금은 공 던질수 있어 행복
프로답게 몸관리 철저
KIA의 '희망 맨' 되겠다

KIA 타이거즈의 좌완 심동섭에게는 생각하지 못했던 2013시즌이다. 지난 시즌 중반 팔꿈치 수술을 했던 심동섭은 올 시즌 군인대를 생각했었다. 재활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일찍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오자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심동섭은 예상보다 일대 날짜가 많이 늦춰지자 마운드 복귀를 선택했다. 서둘러 마운드로 돌아왔지만 팀은 쓸쓸한 가을을 보내게 됐다. 심동섭은 "시즌 중간이라도 1군에 올라왔다는 것이 좋았지만 아쉬운게 더 많은 시즌이다. 팀 성적이 좋지 않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분위기, 기분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욕심 많은 '싸움닭' 심동섭에게는 끝없이 추락하던 팀을 지켜보는 게 쉽지 않았다. 자신의 프로 4번째 해는 생각하지 못했던 쓸쓸한 시즌으로 남고 말았다. 심동섭은 "나도 완벽하지 않았고 팀 상황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즌 마지막 경기를 빼고는 딱히 기억에 남는 경기가 없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애뜻했던 경기가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올 시즌에 대해서 '아쉬움'이라고 말하지

만 수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기를 치르며 조금씩 자신감을 찾았고 스피드도 살아났다. "밸런스가 좋지 않았지만 구속은 어느 정도 찾은 것 같다"며 올 시즌 성과를 언급한 심동섭은 "무엇보다 수술하고 나서 공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이 좋다. 아프지 않고 공을 던진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했다. 마무리 캠프에서의 목표도 확고하다. 밸런스와 컨트롤이 심동섭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다. 심동섭은 "세계 공을 던지기 보다는 밸런스, 컨트롤을 잡는 게 중요하다. 수술 후 돌아온 거라서 밸런스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차근차근 공을 던지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다"며 "어차피 해야하는 훈련, 기본 좋게 할 생각이다"고 각오를 말했다. 하리 통증으로 고전했던 프로 첫해, 두 번째 해였던 2011년 비로소 심동섭은 웃을

수 있었다. 57경기에서 나와 2.77의 평균자책점으로 3승1패2세이브7홀드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배짱있는 투구로 타이거즈의 마운드 계보를 이을 재목으로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지난 시즌 팔꿈치 부상으로 고전을 하며 결국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부상으로 흘러보낸 시간이 많았던 만큼 심동섭에게 마운드는 더 간절한 곳이 됐다. 시즌은 심동섭을 한 뼉 더 자라게 하는 계기가 됐다. 심동섭은 "무엇보다 철저한 몸관리가 가장 중요한 목표다. 수술하기 전에는 쉬는 기간 동안 운동이 부족했다. 쉬는 때 운동도 하고, 운동을 할 때는 조절을 해가면 몸관리를 할 생각이 있다. 재활을 하면서 마운드, 건강에 대한 소중함도 알았다. 더 프로답게 자기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29일 오후 인천 국제공항 입국장에 들어서고 있다. 류현진은 미국 프로야구(MLB) 데뷔 첫해에 14승으로 성공적인 정규시즌을 보내고 포스트시즌에서 한국인 첫 선발승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괴물'이 돌아왔다

금의환향 류현진 "올 시즌 내 활약 99점"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빼어난 한 시즌을 보내고 귀국한 류현진(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은 다저스에서 거둔 첫 선발승과 첫 완봉승, 포스트시즌 첫 승리를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로 꼽았다. 2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류현진은 올 시즌 가장 기쁜 때가 언제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첫 승리와 첫 완봉승,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3차전 승리가 가장 기억에 남고 기뻐했다"고 밝혔다. 류현진은 4월 8일 피츠버그 파이리츠를 상대로 6.1이닝 동안 2실점 투구로 두 번째 등판 만에 바릭과 통산 첫 승리를 올렸고 5월 29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경기에서 9이닝 동안 2피안타로 버려 첫 완봉승(3-0)을 수확했다. 포스트시즌 경기가 열리는 10월에는 다저스가 2패를 떠안고 탈락 위기에 몰린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3차전에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상대로 7이닝 무실점 호투로 팀에 귀중한 1승을 안겼다.

류현진은 이번 활약을 펼친 자신의 활약에 몇 점을 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99점을 주겠다"고 말하고 멋쩍은 듯 웃었다. '99'는 류현진의 등번호와 같은 숫자다. 류현진은 지난 1월 미국으로 떠나기 전 "귀국할 때도 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오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인천공항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팬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발 디딜 틈 없이 모인 사람들을 보고 류현진은 "출국 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며 "올해 처음 귀국이지만 내년에도 귀국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환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다시 약속했다. 부상 없이 1년을 무사히 보낸 점을 스스로 높이 평가한 그는 "내년에도 초반에 10승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재 메이저리그 진출을 타진하는 윤석민, 오승환(삼성), 이대호(오릭스) 등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뛰어난 선배들"이라며 덕담을 건넸다. /연합뉴스

광주일고-동성고 타이거즈기 오늘 결승 대결

광주일고와 동성고가 타이거즈기 우승컵을 놓고 대결을 벌인다. 광주일고가 29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제2회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고등학교 야구대회 준결승에서 정음인상고를 상대로 11-4 승리를 거뒀다. 좌완 한두솔을 선발로 내세운 '전통의 강호' 광주일고는 신생팀 인상고를 상대로 화려한 타력을 뽐내며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다.

동성고도 순천 효천고를 상대로 역전극을 연출하면서 결승에 진출했다. 동성고는 1-2로 뒤진 5회 대거 6점을 뽑아내는 집중력을 발휘, 9-4 승리를 장식했다. 시원한 타격으로 준결승 관문을 통과한 광주일고와 동성고는 30일 오전 10시 무등경기장에서 우승컵을 놓고 격돌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4 소치 동계 올림픽 성화 릴레이 봉송행사가 29일(한국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페테르호프 궁전에서 진행되고 있다. 123일간의 러시아 봉송 과정을 마친 성화는 내년 2월 7일 흑해연안 휴양도시 소치에서 개막하는 동계 올림픽 대회장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연합뉴스

김연아·이상화·모태범... 한국 'TOP 10' 이끈다

소치 동계 올림픽 개막 D-100 쇼트트랙 등 금 4개 이상 목표

눈과 얼음 위의 스포츠 대추제인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이 30일로 100일을 남겨 놓게 된다. 22회째를 맞는 이번 겨울올림픽은 내년 2월 7일(현지시간) 흑해연안 러시아 휴양도시인 소치에서 화려한 막을 올리고 같은 달 23일까지 열전을 이어간다. ◇80여개국 98개 금 경쟁=소치올림픽에는 80여 개국에서 2500명 이상의 선수가 참가해 스키, 빙산,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컬링, 아이스하키, 루지 등 7개 종목, 15개 세부 종목에서 총 98개의 금메달을 놓고 기량을 겨룬다. 이번 대회 슬로건은 '뜨겁고, 차갑게, 그대의 것'(Hot, Cool, Yours)이다. 참가자들의 열정으로 가득한 겨울 스포츠 잔치를 모두 함께 즐기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마스코트는 눈표범(설표), 토끼, 북극곰 등 세 마리 동물로 정했다. 1948년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열린 제5회 대회에서 처음으로 겨울올림픽 무대를 밟은 한국은 소치에서 3회 연속 '세계 톱 10'에 도전한다. 한국은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 대회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고 종합 순위 7위에 올랐다. 이어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서는 금메달과 은메

달 각각 6개, 동메달 2개를 수확하고 역대 최고인 5위를 차지했다. 이전까지의 금메달이 모두 쇼트트랙에서 나왔지만 밴쿠버 대회에서는 스피드스케이팅과 피겨스케이팅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며 종목 다변화에 성공, 양과 질 모두 역대 최고의 대회로 만들었다. 김연아는 밴쿠버 대회 피겨스케이팅에서 역대 최고점을 받으며 '은반의 여왕'에 올랐으며 스피드스케이팅에서는 모태범과 이상화가 남녀 500m를 석권하고, 남자 112m에서 이승훈이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빙속 최강국으로 우뚝 섰다. 소치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진행중인 종목별 예선전은 내년 1월이후 모두 끝이 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참가 선수 수는 알 수 없다. 대한체육회는 아이스하키를 제외한 6개 종목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20명의 선수단이 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체육회는 소치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4개 이상을 획득해 세계 7위권의 성적을 거두는 것을 1차 목표로 잡았다. /연합뉴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개관
sochi 2014
개회기간: 2014년 2월 7~23일(현지시간)
15개 종목, 98개 세부 종목

마스코트: 북극곰, 토끼, 눈표범

소치 동계 올림픽 개관 지도

- 아들러 아레나 스피드스케이팅
- 아이스하키
- 아이스하키 준
- 사이바 아레나 아이스하키
- 피시트 올림픽 스타디움 개회식, 폐회식
- 신악 클러스터
- 산키 올림피아센터
- 모자우토르 인스틸링 마크
- 모자우토르 크라이슬러
- 모자우토르 바이에슬론
- 노르딕 복합경기
- 에스토시도르 크리나야 플라나
- 모스크바
- 러시아
- 소치
- 해안 클러스터
- 아이스버그스케이팅 경기장
-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